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22/32℃ 목포 22/29℃ 여수 23/29℃

단기 4342년 (음력 7월 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53호 1판 2009년 8월 23일 일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김대중 前 대통령 오늘 영결식

**끊이지 않는 추모 인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22일 국회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 오후 2시 국회광장서 國葬 엄수

## 2만4천여명 참석 사상최대 규모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2·3·4·5·6·7·8·9·11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국장(國葬)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유가족, 각계 대표와 시민 등 2만4천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이재풍 의정담당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영결식에는 장의위원과 외교사절, 시민 대표 등 정부가 선정한 9천명과 유가족 측이 추천한 1만5천명 등 모두 2만4천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초청 인사는 국경일 등 일반 경축식 때(평균 7천명)와 비교할 때 월등히 큰 규모다. 그러나 초청 인사 이외의 국민은 경호·경비 문제 등 때문에 영결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날 영결식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 등 11개국의 조문사절단도 참석한다.

발인은 빈소가 영결식장에 설치됨에 따라 영결식 직전인 오후 1시30분께 이뤄질 예정이다.

영결식을 마친 후 운구 행렬은 동교동 사저와 광화문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을 지난 뒤 동작동 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정부는 운구 행렬이 통과하는 시내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추모객의 차도 진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영결식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영결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분향소를 통제하고 대신 임시 분향소를 국회 정문 앞 도로 건너편에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제와 추모 문화제 등은 국장 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운구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별도의 국민추모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운구 행렬이 서울광장에 도착하면 문화제를 중단하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노제를 치르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시신은 현충원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식과 헌화 및 분향, 하관, 허토(관 주변 빈틈을 흙으로 메우는 것) 등의 순서를 거쳐 안장된다.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은 현충원의 국가유공자 제1묘역 하단부에 봉분과 비석, 상석, 추모비 등을 합해 264㎡(16m x 16.5m, 80여평) 규모로 조성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 조문단 하루 더 체류

### 김기남 "李대통령 만나고 싶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을 찾은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과 만찬을 함께 하며 남북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북한 조문단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오전 숙소를 찾은 현 장관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 전달 등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이날 저녁까지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 조문단도 평양의 훈령을 기다리는 등 양측의 조율작업이 지속됐다.

정부가 북측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 귀환하려던 북측 조문단의 체류 일정은 현 장관의 만찬 등으로 연기됐다.

북측이 타고 갈 고려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후 1시께 김포 공항에 도착,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만찬 이후 북한 조문단의 일정은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23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국 곳곳 추모제·공연

### 주말에도 '차분한 애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닷새째이자 주말인 22일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결식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와 목포, 대구, 부산, 김해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문을 미뤄왔던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밤 늦게까지 줄을 이었다. 지역별로 추모제와 추모 공연도 잇따라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와 전남에 마련된 49개의 분향소에는 그동안 25만명의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향소와 시내 곳곳에는 김 전 대통령 대한 애틋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추모 글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고, 가로수에도 근조 리본이 매달려 추모 분위기를 더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저녁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종교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옛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추모제를 개최했다. 또 오후 7시부터는 목포역 광장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추모행사가 열렸고, 오후 8시부터 하의도 생가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넋을 달래는 진도 씻김굿도 진행됐다.

경기도청과 수원역 등 경기도 내 68곳의 분향소에는 이날 하루에만 1만여 명의 조문객이 찾는 등 모두 3만5천여 명이 조문했다.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대합실에서 제주도 사진기자회와 인터넷 사진 전문업체인 포토데스크가 공동 주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반갑습니다'가 개막돼 공항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산역 광장과 수원역 남측광장, 광명시민회관, 청주 상당공원, 전주 오거리광장, 인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등에서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추모제와 추모공연 등이 잇따라 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 前 대통령 國葬' 일요일자 신문 발행